



제9회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 시상식이 18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여상철 상무를 비롯해 박성일 행정부지사, 최진호 도의회의장, 조희정 전북도민일보 전무 및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 IT분야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본보·생산성본부 주최 정보실무경진대회 시상 개인 등 97개분야 수상

지난 2004년 전북도에서 최초로 시
작돼 전국 IT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연 ‘제9회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
경진대회’ 시상식이 18일 전북도청 4
층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IT분야 활성화는 물론 전북과 전국

정보화 실무능력 배양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
능력 경진대회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으
며 올 대회는 지난 10월 20일 82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해 열
띤 경쟁을 펼쳤다.
시상식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여상
철 상무를 비롯해 박성일 행정부지사,
최진호 도의회의장, 조희정 전북도민
일보 전무가 자리를 빛냈으며, 이밖에
유광찬 전주교대총장, 김연형 전주대
부총장, 이공희 전주비전대부총장, 이
희수 전북도장학관, 이상순 원광보건

대 전보전산원장, 이수장 대한상업교
육회 전북지회장, 김창환 대한상업교
육회전북지부장, 윤태복 전북도컴퓨
터학원연합회장 등 내빈과 수상자, 학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생산성본부 여상철 상무는 대
회에서 “전북 정보화 실무능력 경
진대회로부터 i-TOP 경진대회가 태
동할 수 있었고, 각개 부처와 장관상
이 수여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
위의 IT 부문 경진대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치하한 후 “앞으로 실무능
력중심의 개발은 물론 인터넷 유통 분
야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전 국민

모두가 함께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참
여의 마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박성일 정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와 성장에 있어 IT
분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 정보화능력의 수준을 끌어올리
는 계기가 계속되고 있어 기쁘다”면
서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개
인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고 인사
했다.
본보 조희정 전무도 치사를 통해
“이제는 전북 정보화실무경진대회
가 자랑스런 대회로 인식되고 꼭 치

려야하는 행사로 발돋움했다”고 말
한 뒤 “정보화시대에 꼭 간직할 것은
IT능력과 함께 자랑스런 조국애와
자신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
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개인부문 대상
에 이정재(이리부천초, 전북교육감
상) 학생을 비롯해, 김수환(송천정보
통신학교, 전북교육감상), 최나솔(남
원제일고, 전북교육감상), 살리생남
타팍(아성컴퓨터학원, 전라북도지사
상) 씨 등 개인과 단체가 97개 분야에
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수기자 leo@

‘지역제한 입찰제’ 노린 철새업체 기승

감사원 공동도급제 실태조사 작년 231개 업체 도내 전입 2006년 비교 2배 이상 증가 지역업체 자격요건 강화해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페이퍼컴퍼니 등 철새업체 전입을 부
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도

급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다른 지
역으로 전입한 업체가 2006년 2천899
개에서 2011년 3천469개로 19.7% 급
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전
입한 업체는 2006년 111개에서 2011
년에는 231개로 108%(120개)나 증
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도내 전입
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20%를 기록했
다.
이처럼 전북지역으로 전입하는 타
지방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은 지역업체
로 제한하는 각종 공공공사 입찰에 참
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채사업에 지역
업체 의무참여율이 30% 이상으로 높

아지자 이를 노린 철새업체들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
석된다.
현재 혁신도시 등 공채사업을 비롯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공사
대부분이 사전에 발주계획이 공고되
는 등 지역별 공사발주량이 예측가능
한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입찰공고일
전일 또는 90일 이전으로 지역업체 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무공동도급 공
사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인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역업체
자격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입
찰공고 후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에 입찰해 참

가해도 참가자격이 인정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 같은 판단기준으로 수년간 지역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한 지역업
체들이 지역업체 우대제도 혜택을 받
지 못한 반면, 발주물량에 따라 소재
지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형식적 지역
업체들이 수주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
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
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업체 우대
제도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
역업체 자격요건을 입찰공고일 이전
시점으로 일관되게 운용하는 등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
보했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wang3496@

건설관련 업역체계 통합·개선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통과

앞으로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CM)·품질검사·안전진단 등으로 분
리된 업역체계가 단일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
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
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규제위주
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작방법 및 디지털 아티스트를 위한
팁소개 및 실무 지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강연되었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이신후 본
부장은 “게임 및 3D관람객들의 수요
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게임아카데
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게임 관련 능
력과 미래 시장을 내다볼수 있는 능력
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전문가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leebe21@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와 기술인력을
업계 현실성을 고려해 단일화했다.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
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나뉘진
건설기술용역 업역은 건설기술용역
업자로 통합한다. 등록·영양양도·실
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도 단일화된
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게 등록하도록 했다. 설계업무 수행
시 전문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사업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
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자·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
술자 단일체제로 통합한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돼 왔던
왕영관기자 wang3496@

가스안전공 전북지역본부 완주 화산면서 봉사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김길창)는 완주군 화산면에서
화산면(면장 오경택)과 완주군 자
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김민수기자 leo@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본부 직
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연
단 2,000장을 7세대에 배달하고, 내복
21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민수기자 leo@

“당신이 전북무역 첨병입니다”

김종천 우노엔컴퍼니 대표 한국을 빛낸 무역인 선정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제54
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에 익산시에 소재한 (주)우노엔컴
퍼니의 김종천 대표가 12월의 무역
인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은
한국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국내 무역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2007년 7월
제정한 제도로 도내 기업으로는 지
난 6월(제49회) 다산기공(주)의
김병학 대표 수상에 이어 (주)우노
엔컴퍼니의 김종천 대표가 네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한국무역
협회 한덕수 회장,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우노
엔컴퍼니 김종천 대표와 함께 경기
도 평택의 인터로조 노시철 대표가
‘이달의 무역인 상’을, 충북 청원군
의 명정보기술의 이명재 대표가 ‘올
해의 무역인 상’을 수상했다.
김민수기자 leo@

(주)우노엔컴퍼니는 지난 1999
년 설립된 가발원사 생산업체로, 일
본 업체들이 지난 30여 년간 독점
해오던 폴리염화비닐(PVC), 난연
합성수지(PET) 가발사 시장에 진
입해 꾸준한 해외시장개척 노력으
로 지난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주인공
이 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주)우
노엔컴퍼니 김종천 대표는 수상과
함께 한국무역협회에서 관리 및 운
영하는 무역업계 리딩그룹인 한빛
회의 일원이 되어 신시장 개척, 무
역업계 애로 해소 및 무역인 네트워
크 활성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무역협회 심남섭 전북지역본부
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경기 침
체로 우리나라와 전북도의 무역이
추종하는 가운데 받은 수상이라 더
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체들의 성장이 결국 우
리나라가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밑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역본
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도내 기업
이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무역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
했다. 김민수기자 leo@



김종천 (주)우노엔컴퍼니 대표가 최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무역인상’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유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
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
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
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
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
다.
왕영관기자 wang3496@

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에
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 시 5개 사 이상에
게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
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의 이번 결정은 MAS 2단
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용 해 실질적으
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왕영관기자 wang3496@

퀴즈로 배우는 경제상식 / 경제의 스톡(stock)화



이광한 차장
<한은 전북본부>

1989년 일본 정부는 연차경제보고
서에서 경제의 스톡화 현상을 우려
하였다. 경제의 스톡화는 경제내에
서 자산과 부채 같은 스톡(stock)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통해
얻는 소득, 소비 같은 플로우(flow)
변수보다 자산과 부채 같은 스톡(s
tock) 변수의 파급효과가 커진다. 경제의 스톡화는 동맥
경화라는 질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맥경화는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를 일으킨다. 일본에서는 2년 후인 1991
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잃어버린 20
년을 보내고 있다.
단기 압축성장이라는 세계 경제발전의 성공 모델로 인
정받던 한국경제도 경제 스톡화 현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
다. 2010년 우리나라 경제규모(명목GNI)는 2000년 600
조원에서 1,175조원으로 1.9배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경제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은 2000년 6,992
조원에서 2010년 1조 8,107조원으로 2.6배 늘어 우리나라
도 경제의 스톡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 스톡화’는
가계와 기업, 정부, 금융 등 경제 흐름의 선순환 고리를 약
화시킨다. 수출이 늘어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성
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며, 고소득층의 씹씀이가
커져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다. 즉 위 그것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아래 그릇도 채워지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가 약해지는 것이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면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
대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
는데 결국에는 사회불안이 확대되고 계층 간 이동이 줄어
드는 등 사회적 역동성이 약화된다. 한편 국가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소득보다는 자산으로 생활하는 국민이
 많아지며 경제의 기반이 소득이라는 플로우 변수에서 자
산이라는 스톡 변수로 옮겨간다.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경
제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수익률이 높다면 근로와
투자 의지가 약화되는 ‘불 주도형 경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막으면서 ‘경제 스
톡화’ 추세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해답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라는 의지’를 복돋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에 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국내적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혁신적인 연구개발, 근로 의욕 등 긍정
적 플로우를 진작시켜 경제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 국내의
경제자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성 차이 이외의 고용
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답답같은 불공정 경쟁, 진입 장벽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
이는 최근의 ‘경제 민주화’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울
러 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남아도는 자본을
해외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국내 자
산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시켜야 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주 퀴즈>
경제 내에서 자산과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 ① 경제의 스톡화 ② 경제의 플로우화

<지난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② 그레이 스완
당첨자 : 양옥례 님(전주시 완산구), 최은영 님(전주시

덕진구)

■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
(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세요.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 제공>



전라북도게임아카데미 해의 실무자 초청 강연

게임 관련 해외 유명 종사자들의 게
임개발 및 작업 스토리를 들을 수 있
는 특별한 강연이 열려 주목받았다.
전라북도게임아카데미가 지난 12
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북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전라북도게임
아카데미 해의 실무자 초청 강연’을
진행,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호
빗-뱀바의 여정’의 3D 모델링을 작업
한 뉴질랜드 Weta Digital 이선진
Senior Digital Modeler를 초청하
여 게임개발 및 게임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특히 이번 강연은 해외 유명 실무자
가 초청된 만큼 전북 도민과 전북게임
아카데미 교육생 및 도내 게임 관련
종사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남

기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차세대 디지털 아트제작흐름’이라
는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아트
를 위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조건과
Look Development과 포트폴리오
제작방법 및 디지털 아티스트를 위한
팁소개 및 실무 지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강연되었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이신후 본
부장은 “게임 및 3D관람객들의 수요
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게임아카데
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게임 관련 능
력과 미래 시장을 내다볼수 있는 능력
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전문가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leebe21@